

#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1.8/9  
vol.284



www.hanbeot.org

## 추석명절

코로나가 아무리 모질어도  
가을 햇볕이 이리 너그럽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난 봄여름의 우울도  
사랑이 되려나봅니다





## 익명의 미국교민 부부, ‘1억원 기부’

미국 달라스의 교민부부가 이름을 밝히지 말라며 1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001년 한빛회 관 건축 시 1억원 출연 등 22년간 매월 기부를 이어 오는 분입니다. 이 출연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펼쳐 뜻을 잇겠습니다.

### 갑작스런 기부통보

지난 8월,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물었다. ‘아니, 이렇게 큰돈을 갑자기?’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실은 전부터 조금씩 저축한 거예요. 저희는 45년 전에 미국 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자식들도 가정을 꾸려 자립했고, 우리부부는 작은 가게 하나 가지고 그런대로 살아요. 조금씩 모아 온 돈인데 자식들에게 주기보다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에 와 사는 친지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니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 미국 교민의 1억원

미국이 잘산다지만 그렇다고 돈이 남아돌 리 있겠는

가? 돈 아끼고 할부 쪼개느라 빠듯한 미국살림에서 10만 달러는 우리의 1억에 비할 바 없는, 까마득한 절벽 같은 액수이다. 더구나 이 부부는 돈 많이 번, 성공한 교민이 아니다. 분명 무슨 심상치 않은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붙들고 물었다.

### 노후의 성찰

예상은 빗나갔다. 부부는 마지못해 나직하게 몇 마디 덧붙였다.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게 분명하잖아요. 평생 돈 모으려고 발버둥 치다 끝내 돈 움켜쥔 채 죽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우리 부부는 이 나이에도 큰 병 없이 건강한 편이니 복 받은 겁니다. 받은 복을 우리보다 못한 이들과 조금이라도 나누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인생 노후의 결론은 이처럼 쉽고 널찍하구나! 누구나 모를 리 없고, 누구나 한번쯤 해볼 만한 생각 그리고 적든 많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명예시민의 봉헌』

[illegible]

이웃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일은 최  
고의 명예로움이다. 자  
신의 소유를 기부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어놓음’이 곧 고귀  
함이고 명예이다.

나 봉사한 모든 분들의 이름이다. 이 작업은 2년 전부터 착수해왔다. 올해 말, 우선 197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록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역사’는 오로지 개개인의 이야기이다. 개인 없이 나라가 없듯, 개인 없는 역사란 없다.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개인이다. 개인의 기부 이야기, 그 고귀하고 명예로운 사건을.

인류역사는 자신을 내놓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고양되어 왔다. 역사를 기록함은 이를 남겨 끊임없는 성장의 디딤돌로 삼기 위함이다. 한뼘도 이 같은 수많은 시민의 내어놓음, 기부와 헌신에 의해 태어났다. 물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기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뼘은 이를 기록하여 간직하고자 한다. 스스로없는 내어놓음에서 한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3년, 창립 45주년을 맞아 한빛에 기부한 명예시민의 기록을 봉헌한다.

이는 창립연도인 1978년부터 2023년까지 기부하거

사람이 어찌 자기 아닌 남을 연민하는가? 그리하여  
 홀연한 내어놓음과 침묵, 또한 잊음. 우리 사는 세상  
 도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답다!

정작 본인은 잊었을 것이다. 왼손이 오른 손을 잊듯. 기록을 남기든 말든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벗은 잊지 않는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에서 비롯하였고, 그 고귀함에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벗의 역사는 이 분들의 이야기이다.

한뼘의 원천이고 근육이자 혼이다.



## 장애인이 겪는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시에는 장애인과 약한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먼저 이들을 공격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먼저 죽고 고통을 받는다.

〈2020년 12월말 집계〉

### 사망자

확진자의 치명률 0.9%. 그러나 **장애인 치명률은 21%**이다.

### 확진자

비장애인 확진자는 인구 대비 1.2%, 그러나 **장애인 확진자는 7.5%**

### 돌봄공백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87%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빛의 주간보호실 이용 엄마들이 그렇다.  
특히 **자폐성장애티스트들이 집에만 갇혀 가족의 고통이 크다.**

### 시각장애인

주요 생계 수단인 **안마시술소의 70%가 영업을 못 하고 있다.**  
바람 쏘이기 좋아하는 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청각장애인

마스크 사용으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수의 **청각장애인이 입 모양을 보고 소통(口語)**하기 때문이다.

### 실직장애인

코로나로 직장을 잃거나 휴직상태인 장애인은 **취업장애인의 21.7%**  
임시직, 계약직이 많기 때문이다.

### 한빛의 어려움

정기후원 중단회원 97명, 관광버스운행 손실, 외부기관 후원금 감소  
등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한뼘주간보호실의 근로장학생

### 젊은 대학생들의 생동감

우리 주간보호실의 장점은 활기 찬 대학생들이 오간다는 점이다. 이 젊은이들은 자칫 고루할 수 있는 일과에 명랑한 바람을 불어준다. 특히 일반학생이 오지 않는 방학기간 중에 근로장학생들이 찾아주어 반갑고 고맙다. 물론 이용장애인이 더 좋아한다. 코로나 4단계로 모두 마음 한 쪽이 썰렁하던 참이었는데 이들의 발랄한 싱그러움이 코로나의 긴장을 잊게 했다.

### 봉사활동도 근로로 간주

근로장학생의 '근로'에 봉사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어 서로에게 좋다. 지난여름 두 달 동안 4명의 숙명여대 학생(권지혜, 김윤희, 김주원, 우지민)이 이용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었다. 손잡고 다독여주고 밥도 먹여주며 웃고 떠들면서 코로나의 침울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방학이 끝나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

### 자원봉사 고맙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 우지민, 김주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김윤희
- 호원대학교 - 권지혜

### 특별후원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최승연 님 / 100,000원
- 경민숙 님 / 100,000원

### 후원물품 고맙습니다.

- 오은주 이용자 어머님 - 쌀 10kg 3포대
- 한효승 이용자 어머님 - 메론 1박스, 기저귀 9봉지
- 푸드뱅크 - 빵 60개

한빛등지 소식

## 석범 군,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탈락 “파리 올림픽에 도전하겠습니다”



공을 굴려 목표지점에 가깝게 놓기  
국가대표 4년의 원석범 군(왼쪽)

지난 8월 24일의 도쿄패럴림픽 개최식의 한국선수단 기수는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였다. 보치아 경기는 뇌성장애인 스포츠로 양궁처럼 우리나라가 올림픽 8연패한 효자종목. 한빛등지의 원석범 군은 2017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했지만 최종 선발전에서 탈락해 도쿄에 가지 못했습니다.

“도쿄에 못 갔다고 저의 선수생활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저는 보치아를 하게 된 것 만으로 고맙게 여깁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합니다. 파리 대회를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국가대표다.

### 기부해 주신 후원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월 17일 ~ 8월 16일 ( )안은 횟수)

강순기 1만(2) 강신순 2만(2) 강인수 1만(2) 강훈선 5천(2) 고유미 1만(1)  
곽봉현 1만(2) 구혜림 1만(1) 권미정 3만(2) 권영수 10만(2)  
공영순 2만(2) 길 현 5천(2) 김간란 5만(2) 김미진 2만(2) 김선향 1만(2)  
김여은 1만(2) 김영순 5천(1) 김영진 1만(1) 김용락 5천(2) 김윤근 1만(2)  
김인숙 1만(2) 김인곤 1만(2) 김명순 1만(2) 김민서 5만(2) 김태일 1만(2)  
김한서 5만(2) 김호영 1만(2) 마은영 5천(2) 문정희 2만(2) 박해진 1만(2)  
박희수 3만(2) 박성준 1만(2) 박푸름 1만(2) 백승열 4만(2) 서소녀 1만(2)  
서인숙 1만(2) 성다혜 1만(2) 송은숙 1만(2) 송옥진 1만(2) 오광진 1만(2)  
오성진 1만(2) 유정옥 5천(2) 유정자 10만(2) 윤일삼 3만(2)  
윤정애 1만(2) 윤정현 3만(2) 윤태훈 1만(2) 이정진 1만(2) 이태한 1만(1)  
이명구 1만(1) 이병수 2만(2) 이상수A 1만(2) 이상수B 1만(2)  
이옥순 1만(2) 이윤경 1만(1) 이인섭 1만(2) 이재호 1만(2) 이현주 5천(2)  
이태균 5만(2) 이태한 1만(2) 이혜란 5천(2) 임경숙 5천(2) 임영택 1만(2)  
임재창 3만(2) 장영숙 1만(2) 장진섭 1만(2) 장호근 1만(2) 정완교 1만(2)  
정세완 1만(1) 제갈윤 1만(2) 조기택 2만(2) 조길용 3만(1) 조민진 2만(1)  
조성윤 5만(2) 조은미 5천(1) 조은이 2만(2) 조은주 10만(2)

(주)삼솔무역 5만(2) 지현정 2만(2) 진 권 1만(2) 진옥란 3만(2)  
진주형 2만(2) 차민우 1만(2) 최경희 1만(2) 최미정 1만(2)  
최선영 1만(2) 추지훈 1만(2) 한지행 1만(2) 한초덕 2만(2)  
홍영미 10만(2) 황민규 2만(2) 황정현 3만(2) 열림교회 10만(2)  
서강어린이집 417,000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만(1)

### 선물 고맙습니다(6월17일 ~ 8월16일)

- 고유미(후원자) 과자 외. / 공영순(후원자) 계란 외.
- 김명순(후원자) 아이스크림. / 김영진(후원자) 목욕가운 외.
- 박주용(이용자) 식재료. / 안태웅(봉사자) 아이스크림.
- 여일구(후원자) 닭 외. / 예당식품(후원기업) 과일음료.
- 홍기탁(후원자) 사과. / 이지영(후원자) 아이스크림.
- 진권(이용자) 식재료. / 롯데카드(후원기관) 쌀 외.
- 마포경찰서 쌀 외. / 부흥세탁(후원자) 참외 외.
- 푸드뱅크 오리고기 등. / 중년의 행복방(봉사자) 식재료

## 복지용구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 복지용구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노인용품을 말합니다. 모두 17종인데, 빌리거나 구입할 때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전동 침대나 수동휠체어 등은 대여료를 내고 빌릴 수만 있고,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처럼 싼 제품만 구입비의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10%만 복지용구 혜택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모두 복지용구 보험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선 65세 이상으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뇌출혈,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한 노인의 72% 정도만 등급을 받습니다.

### 복지용구가 필요한 분들

20년말 현재 등급 받은 노인은 86만명. 나머지 65세 이상 760만명은 보험혜택이 없지만, 복지용구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중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 한뼘이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이나 퇴원환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에게 빌려드립니다.

수동휠체어(아동용휠체어 등 4종),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리프트체어, 보행보조기,  
샤워의자(뒤로 눕힘 등), 이동변기,  
면기저귀, 지팡이, 긴팔집게  
원하는 기간 동안 무료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문의 : 02)393-0661



바닥에서 휠체어나 침대로 올려주는 리프트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보행보조기

사용하지 않는 중고 복지용구나 장애인보조기구를 기증해주세요. 전화 주시면 가지러 갑니다.



## 미얀마 3차 의연금, 희생자 가구 어린이 등에게

미얀마의연금 3차분 105만원을 전달했습니다. 1, 2, 3차 의연금 총 375만원, 기부회원 37명과 재단본부, 월체어날개달기가 참여했습니다.



희생자 가족 신장병 소녀



남편 잃은 모자 가구에게



희생자 가족 신생아



희생자 가족 어린이를 위한 여의사



아들 잃은 할머니와 손주



몬주의 홍수피해 가구(2곳)

미얀마 의연금 계좌 : 국민은행 763601- 04 - 155077 이름옆에 '미'

### 8월, 미얀마 정황

코로나19 감염 7월부터 급증. 군부의 의료인력 구속 600명, 열악한 의료시설로 사망률이 우리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활동이 크게 제한받고 있으며, 식량비 상승, 일자리 감소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인구의 6.6%에 불과

재단소식

## 한빛둥지 직원 4명 늘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라 사회복지사 4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의 직원이 연중 주야로 교대하며 격무에 시달려왔는데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 얼굴 마사지와 헤어 커트 9월부터

한국미용협회가 7월부터 예정했던 얼굴 마사지 서비스가 코로나 4단계 시행에 따라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날짜 미정). 9월 중 3단계로 하향되면 시작합니다. 헤어커트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2)393-0661



### 이경화 선생 근무

왕년의 이동봉사대원 이경화 님이 보조기기 관리와 유모차수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미안마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코로나 19로 별세한벗 초청으로 두 번이나 방문했던 미안마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님이 안타깝게도 지난 7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별세했습니다. 심한 장애에도 유능한 분이었는데, 애도를 표합니다.



### 월남전 참전 미국 상이군인

딸 만나러 온 미 상이군인, 용케 한벗을 수소문해 휠체어 빌려가네요.



재단소식



후원회원들에게 드리는 선물 ‘공주님의 치마’

한뼘을 이용하던 장애인 중에서 세상을 떠난 열한 분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9월 하순부터 우송해 드립니다(비매품)

## 특별후원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 미국 달라스 교민 : 김애신 \$3,000. 장덕환 \$300. 한영숙 \$300. 케니 김 \$30. 지나 \$20
- 나운영 기념사업회 : 유경손 고문의 아드님인 나건 이사장님 30만원. 10주기를 맞아
- 이관희 이사장 : 전 이동봉사대 부이사장, 현 사)한국문화예술가협회 이사장님 10만원
- 장수성 / 안경옥 님 : 휠체어를 빌려 가시며 10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 평택 버스커식당 : 휠체어날개달기 저금통을 식당에 놓으셨습니다(6월). 156,100원
- 백기완 선생님 : 휠체어날개달기 연 후원금 12만원
- 미안마의연금 : 김경미 선생님 10만원. 날개달기에도 종종 기부해주시고 계십니다.
- 박한성 이동봉사대원 : 떡 한 상자와 10만원을 가져오셨습니다.
- 전 한뼘회원 강영숙 님 : 50만원을 특별기부하셨습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기부를 계속해주는 정성,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1년 6월~7월 31일 입금분

※ 7월에 인출되지 않는 경우 다음 소식지에 게재합니다.

( )안은 개월 수

### 〈한뼘재단〉

문숙자(2) **이상 1,000원**  
김계순(2) 김미란(2) **이상 2,000원**  
강희준(2) 구성유(1) 손미연(2)  
**이상 3,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안/장은혜(2) 공충식(2) 박안나(2)  
곽환상(2) 구자군(2) 구재순(2) 김관중(1)  
김대현(2)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1)  
김수영(2)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도현정(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2)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2)  
배재수(2)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아(2)  
신인아(2) 신혜경(2)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당산2)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2)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종태(2) 이지영(1)  
이행남(2) 이호열(2) 임익삼(1) 임정리(2)  
장수관(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규영(2) 조명순(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하성남(2) 한진숙(2) 현승혜(1)  
홍영일(2) 홍혜경(2)

**이상 5,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희정(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동현(2)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2) 김보금(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송파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자(2) 김인숙(부산2) 김자경(1)  
김재환(2) 김정옥(1) 김종용/전정원(1)  
김준형(2) 김진수(2) 김진원(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1) 김화중(2) 나효진(2)  
노현옥(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2)  
박선영(2) 박수희(2) 박순화(2) 박영주(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자(2)  
박일현(2) 박종성(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1)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춘숙/김신근(2) 서동범(2) 서미란(2)  
서영란(2) 석지민(2) 석지은(2)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송정석(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2) 양일섭(2)  
오병철(2) 오상만(2) 오상분(2) 오성곤(2)  
오용석(2) 웅미경(2) 우성래(2) 윤경자(2)  
이건수(2) 이금주(2) 이동인(2)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민정(2)  
이상일(2) 이상조(2) 이선미(2) 이성직(2)  
이송균(2) 이수경(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윤상(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종빈(2)  
이종태(2) 이지영(2) 이지원(2) 이진훈(2)  
이형영(2) 이호성(2) 임경민(2) 임난숙(2)  
임동상(2) 임옥자(1) 임정순(2) 장관용(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1)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2) 정봉열(2)  
정석환(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진영(2) 조화기(2)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경한(2) 최명선(2) 최순희(2)

최종문(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추정일(2) 태효원(2) 표창호(2) 하정희(2)  
한경미(1) 한성진(2) 한혜숙(2) 함정혜(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홍성금(2) 황경희(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1) 황해국(2) 15,000원 김병석(1)  
현영돈(2)

**이상 10,000원**

(주)인스월드닷컴(1) 강만희(1) 강순화(2)  
강영철(2) 김민주(1) 김수현(2) 김승태(2)  
김용신(2) 김인숙(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열(2) 박지웅/유정영(2)  
백봉현(2) 백지웅(1) 변상순(2) 서성민(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연세어학원/이주연(2) 오정연(2) 유광주(2)  
이광범(2) 이남숙(2) 이미경(1) 이상권(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2) 이성재(1)  
이숙재(2) 이정림(2) 이주형(2) 임원기(1)  
조윤식(2) 최경희(1) 최두홍(2)

**이상 20,000원**

강재철(2) 김기형(2) 김은경(1)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2) 박용길(1) 성숙경(2)  
신화용(2) 오상은(2) 오청근(2) 윤경자(1)  
이상길(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정병배(2) 홍성관(2)

**이상 30,000원**

박종성(2) **이상 35,000원**

고명지(2) 서판임(2) **이상 40,000원**

김은영(1) 김은주(2) 김지웅(2) 김현수(2) 김  
홍현(2) 민택산업/남기백(2) 박문영(2)  
RTX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이정숙(2) 이종우(2) 최혜자/함형복(2)



이상 5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휠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구태언(2)  
김윤희(2) 노희정(2) 박지연(2)  
어재형/신지영(2) 이승수(2) 이영숙(2)  
장우형 부이사장(2)

이상 100,000원

채진석(2) 이상 150,000원

안성환(2) 이상 300,000원

명지춘해병원 교회(2) 이상 900,000원

### 《휠체어날개달기》

조성우(2) 이상 5,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2)  
김동현/김승기(1) 김명석(2) 김서주(2)  
김소하(2) 김승영(2) 김순이(2) 김영숙(2)  
김옥렬(1) 김용환(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1)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1) 박만수(2) 박미애A(1)  
박수경(2) 박신웅(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2) 신승엽(2) 안경옥(2) 안종필(1)  
안지민/박미애(2) 안지우/박미애(2)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창욱(2) 이재숙(2)  
이주연(1)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해숙(2) 이현경(2) 이형재(2) 이혜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묵(1)  
조선행/김은하(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옥희(2) 최유경(2) 최윤지(2)  
최진숙(2) 추경은(2) 한충길(2) 한혜영(2)  
허명희(2) 홍경숙(2) 홍상문(2)

이상 1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일생(2) 김진형(2) 김철상/이공이(2)

김효생(2) 박순신(2) 박정경(2) 박혜란(2)  
손기현(1) 송경자(2) 오문영(2) 이상희(2)  
이연우/박정현(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2) 장혜연(2) 전승완(2) 정경호(2)  
정연희(1)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명숙(2) 한광희(2)

이상 2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건우/박정현(1) 이태자(2) 최진경(2)

이상 30,000원

(주)서버존(2)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최정희(2)

이상 50,000원

박형상(2) 이상 100,000원

변천섭(2) 이상 200,000원

### 《한벗동지》

고현우(2) 공아영(2) 광희수(2) 기효순(2)  
김계자(2) 김인경(2) 김재열(2) 류민경(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박창범(1) 서정민(1) 송효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윤미영(2) 임정혜(2)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진예원(1)  
최은미(2) 한경희(2)

이상 5,000원

강현(2) 광영현/장형기(2) 구성모(2)  
권오준(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희(2)  
김미진(1) 김미애(2) 김병준(2) 김상수(2)  
김선옥(2) 김세연(2) 김승희(2) 김연주(1)  
김용미(2) 김우주(2) 김인순(2) 김정석(2)  
김태연(1) 김혜정(2) 남성현(2) 노신규(2)  
노영서(2) 노인택(2) 류재남(1) 박건우(2)  
박경희(2) 박리라(1) 박상현(2) 박용우(2)  
박일현(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2) 백정린(2) 변기정(2) 변아름(1)  
서동연(2) 서민향(2) 서정민(상암)(2)  
서희주(2) 신동연(1) 안국희(1)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현태(2) 여일구(2)  
우기후(2) 우춘자(2) 유남주(1) 유예순(2)  
이강전(1) 이소정(2) 이송순(2) 이영순(2)  
이용식(2) 이종욱(2) 이혜순(2) 이혜진(1)  
이희권(2) 이희숙(동지)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장순주(2) 장유나(2)  
장철만(2) 전예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동지) 정재영(1) 정진하(2)  
정향남(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최은미(2) 홍윤재(2) 황진숙(2)

이상 10,000원

강희정(2) 김경란(2) 김성우(2) 김임순(2)  
김정효(2) 김희량(2) 박민희(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이선우/김연희(2)  
이정림(2) 이지영(2) 정현주(2) 하정운(2)  
한재형(2) 함중수/한정옥(2)

이상 20,000원

곽형우(2)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윤영(동지) 성낙일(2)  
오범균(2) 이용기(1) 이재용(2) 임혜숙(1)  
정은영(2) 최갑석(2)

이상 30,000원

김간란(2) 윤미선(2) 조항미(2) 홍영미(2)  
이상 50,000원

주지연(2) 이상 100,000원

하대주(2) 이상 200,000원

###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박현민(2) 이상 5,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진아(2)  
김왕수(2) 신재철(1)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원주)(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이상 1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이상 2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김선광(2) 이태희(2)  
이상 30,000원

김혜원(2) 유경환(1) 이상 50,000원

최수진(2) 이상 70,000원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이상 100,000원

#### 〈주간보호센터〉

김운수(2) 조승현(2) 이상 5,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종미(2) 박채련(2) 양영춘(2) 오선주(2)  
윤준호(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 이상 10,000원

김민정(2) 이상 15,000원

김정훈(2) 김종범(2) 신호숙(2) 심진섭(2)  
엄해경/김근일(2) 이상 2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이원재(2) 한가현(1)  
이상 30,000원

신현관(2) 장안태(2) 홍지웅(2)  
이상 50,000원

김현진(2) 이상 100,000원

#### 〈미국 교민 후원금(달러, 칼린)〉

코로나19를 겪는 한뼘을 위한 성원,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2021년 7-8월〉 ( )은 개월

• 달러지역(\$4,450)

7-8월 김운원 \$200(2)

스텔라 \$150(2/미얀마 \$100포함)

장덕환 \$50(2)

특별후원 김애신 \$3,000

장덕환 \$300 한영숙 \$300

케니 김 \$30 지나 \$20

• 킬리지역(\$505)

7-8월 성인숙 \$25(2) 최정임 \$25(2)

고향미 \$20(2) 김은희 \$20(2)

김혜중 \$20(2) 백수산나 \$20(2)

이사벨라 \$20(2) 이정숙 \$20(2)

이영란 \$20(2)

조마리나 \$45(7월/8월 \$25)

조용순 \$20(2) 허양옥 \$20(2)

• 총(\$4,955)

미얀마 방정환기금 내역은 별도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통권 제 284호

발행일:2021년 9월 10일

발행인:최명숙

제작:한뼘재단

주소:(우04319)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TEL:(02)393-0661(대)

MOBILE:010-6747-0661

FAX:(02)712-6093

이메일: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www.hanbeot.org

#### 한뼘재단 임원

법인이사:최명숙(이사장) 장우형(부이사장)

김운원 김정희 김혜명 윤승모 채진석

유형진

법인감사:강만희 김훈

운영이사회:백진양(회장)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엄해경 이경화

#### 부서별 연락처

한뼘동지:02)336-3100

주간보호:02)713-5050

휠체어기증본부:02)713-1005

한뼘투어:02)702-1515

### 21년 6 ~ 7 월 재 정 보 고 (2개월 합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정기후원금(재단)	17,583,053	시설전출금(동지/주간)	3,390,000
동지/주간후원금	7,305,000	미얀마 사업비	2,965,000
휠체어날개달기 기금	5,016,100	어린이잡지 기증	2,992,200
방정환기금	1,691,000	식당 운영비	250,000
건물임대, 관리비	1,734,506	급여 및 퇴직금	20,489,741
직원식대 등	1,120,000	사회보험금	2,000,300
미얀마 의연금	200,000	버스할부금	3,210,780
유모차 기부금	140,000	적립금	2,666,000
잡수입	700,000	기관운영비	4,615,300
차입금	11,000,000	차입금상환	2,500,000
		공과금/잡비	1,002,000
총계	46,496,087	총계	46,081,321

#### 후원계좌

- 한뼘재단 국민 763601-04-002564
-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 한뼘동지 국민 577301-01-127870
- 한뼘주간보호센터 국민  
763601-04-078400
- 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 재정보고 내역은

한뼘동지와 주간보호시설의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재단사무국의 재정현황입니다.



## 미얀마, 구데타에 코로나19까지 남아시아 국가 중 치명률 제일 높아



**미얀마 보건소 앞에 줄지은 산소통**

산소통마저 구하지 못하고 있고, 군부의 허락을 받아야 이렇게 줄이라도 설 수 있습니다.

8월 26일 현재

구 분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사망자	2,257명	15,770명	10,085명	9,349명	129,293명	14,737명
치명률 (확진자 중 사망자비율)	0.93%	1.2%	0.9%	2.5%	3.2%	3.9%

7월부터 확진자 급증, 8월 24일 현재 1일 1,400명대 기록.

사 람 세 상

## 불공정(不公正)



우리는 공정(公正)을 추구한다. 사회가 그동안 힘 있고 돈 많은 쪽으로 기울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일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정의 잣대로 잴 수 없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많다.

쓰고 싶은 대로 쓰며 돈 모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끊임없이 아끼고 참아야 돈 모으는 법이다. 그런데 평생 모은 거금을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덱식 기부해버리는 사람들, 그 인고와 절제의 세월에서 보면 얼마나 불공정한, 순간의 방기인가!

올림픽 폐막식에선 반드시 자원봉사자를 무대에 세워 세계인에게 치하하는 순서가 있다. 각고의 시간

을 쌓아 참가한 선수들이 보기엔, 고작 15일 동안 봉사한 이들에게 IOC위원장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의아하다.

아비의 유산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분을 못 풀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한다. 부모로선 기가 막힌다. 자식사랑은 애초부터 일방적인 불공정이었기에.

한뼘만 해도 백 명 넘는 분들이 10년, 20년 동안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어떤 보상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러한 불공정을 어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미안마의 19살 젊은 아들이 거리로 나서기 전 엄마에게 절을 한다. ‘어머니, 제가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어미 속이 무너진다. ‘내가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도 어미는 자식의 불공정을 용인하고 만다. 내 새끼가 그토록 바란다나.

아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걷지도 보지도 못한다. ‘하필 내 아이가?’ 젊은 엄마는 절망한다. 그래도 이 믿기지 않는 불공정을 엄마는 사랑하고 만다.

공정에는 감동이 없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공정 위의 불공정이다.